

제2회 방문학자 포럼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郭朝先,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협력(刘勇, 국무원발전연구중심)
3. '13차 5개년' 계획 전망과 일대일로 전략(左傳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4. 한중 경제발전과 경제무역 협력(徐長文, 상무부연구원)
5. 위안화 국제화가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추세(陳虹,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6. 호주-중국, 호주-일본, 호주-한국 FTA 비교(呂博, 상무부연구원)
7. 한국기업의 중국내 특허특징 분석(陳向東, 중국항공항천대학 경제관리학원)
8. 한중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胡文龍,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郭朝先,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11월 18차 3중전회 '결정'에 포함되면서 국가전략으로 부상하였고, 2015년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전면적인 시행단계에 진입함.

□ 중국은 세계 2대 경제국으로 부상, 새로운 대외경제 관련 ‘대동맥’ 발굴 필요성 대두

- 1990년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점점 상승하는 반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경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세를 보임.
- 현재 중국은 세계 2대 경제국, 세계 2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 세계 3위 서비스무역과 대외투자 국가로 부상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세계 정치패턴의 변화에 부합되는 전략이며, 중국 대외개방 확대 심화의 수요이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세계 각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요이기도 함.

□ 중국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 지역간 협력은 국내에서 주변국가와 국제로 확대

- 중국경제는 지역간 발전여건 차이가 현저하여,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이 전통적인 ‘4대 판괘’ (동부전환발전, 중부궤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의 정책하에 ‘3개 지지대(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 협동발전)’ 로 지역발전전략으로 확장하고 있음.
- ‘3대 지지대’ 를 통해 ‘4대 판괘’ 가 연결되면서 동부지역은 경제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중부지역은 종합적인 교통허브와 제조업센터가 형성되며, 서부지역은 인프라시설이 더 완비되고,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을 실현하게 될 것임.

□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투자협정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 등 서방국가가 주도한 새로운 무역투자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 등에서 중국이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협정에 따른 무역이전 효과와 무역 차별대우 등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 발전의 흐름에 따라 주변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함.
- 또한 관련 무역 파트너와 지역적 혹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의 인적, 물류, 자금, 문화, 상품 등 교류를 강화해야 함.

□ 일대일로 전략에서 지역별 역할

- 신장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지역’ , 푸젠성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지역’ 임.
- 산시, 간수, 닝샤, 칭하이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로 통하는 통로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즈니스 무역, 물류허브, 중요산업과 인문교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지역임.
- 광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도시로 확정되었으며, 윈난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네이멍구,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베이징은 동북아 개방의 중요한 창구지역으로 확정됨.

□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 마련

- 첫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교통여건의 개선
 - 중국 서부지역과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국가의 인프라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함.
 - 인프라 건설은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등 통신정보 인프라 건설도 포함.
- 둘째, 자유무역지역 건설 기회
 - 현재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무역거래에 많은 장벽과 애로사항이 있어, 연선 65개 국가와의 자유무역지역 구축을 연구 검토하고 있음.
- 셋째, 비즈니스 무역과 물류산업 확대 기회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고,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주요 투자국임.
 - 중국기업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70여개 협력단지를 건설하여 프로젝트를 추진, 수천만 명의 고용창출을 실현하였으며 연선국가의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을 촉진하였음.
- 넷째, 산업협력 심화 기회
 -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과 연선국가는 ① 교통운송업, 철도건설 관련 설비, 공항 서비스와 설비 및 제조, ② 건축업, 장비제조업, 인프라 건축소재, ③ 에너지 건설분야, ④ 비즈니스와 문화관광 산업, ⑤ 정보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다섯째, 금융협력 심화 기회
 -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앙은행 혹은 통화당국 및 금융 감독관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과 위기처리 메커니즘을 강화 △ 감독관리 심사허가 절차 간소화 △ 용자루트를 확대하고 중대장비 등 산업체인에 대한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강화 △ 위안화의 해외지급과 결제 시스템 완비 △ 일대일로 연선국가 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 AIIB와 실크로드 펀드 구축
- 여섯째, 인적교류 확대 기회
 - 연선국가간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 및 도서 전시회 등 행사를 개최, 실크로드 특색이 있는 국제 관광노선과 관광제품 출시, 스포츠 교류 지원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협력

(刘勇,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인식

- 첫째, 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면서, 경제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이 세계 평화발전에 대한 책임을 늘려야한다는 각 국의 요구에 부응한 중국판 세계화 전략

- 둘째, 육·해상의 지정학적 위치를 심분 활용해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지역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선택
- 셋째, 지금까지 경제적 성과를 위한 외래문물의 적극적 수용으로 자연스레 쇠퇴되어 온 중화문명을 다시 한 번 부흥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필연적 선택

□ 일대일로 전략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이용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한·중 무역총액은 이미 아랍22개국과의 교역액을 합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양국 FTA의 체결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됨(중국 1~2%, 한국 3%의 GDP성장 전망).
- 무역, 금융 및 해운업이 발달한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일체화 추진의 가속화와 한국이 중국의 TPP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중 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건의 사항

- (정책적 소통) 정부간 협력 및 상호신뢰를 강화하여 새로운 컨센서스 도출
- (공동 인프라 구축) 한국-북한-중국을 잇는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인프라 관련 상호 협력 및 통신 간선 네트워크 건설
- (무역 개방 및 투자 확대) 투자무역편리화, 투자 및 무역장벽 제거, 무역범위 확대 및 무역구조 최적화를 추진, 자유무역지구 내 한국 및 기타 국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촉진
- (자금 조달) 각 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및 '실크로드' 펀드 설립 제창, 심도 있는 금융협력을 통한 아시아 화폐의 안정적인 시스템 추진, 투자 및 신용 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강화 및 양국의 관리감독협력 MOU를 체결로 효율적인 관리감독 기구설립 추진
- (문화 및 학술적 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 인재교류 협력, 매체 협력 및 자원봉사 진행

3. '13.5' 계획 전망 및 일대일로 전략

(左傳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 '13.5' 계획에는 13.5 기간내 중국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이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제시
- 13차 5개년 기간 동안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을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혁신발전 추진할 예정임.
- 민생수준의 보편적 제고를 위해 도농간 발전일체화를 이루고 빈곤문제를 해소할 것임.

- 도시와 농촌의 발전일체화를 위해 특색 있는 현(縣)경제의 발전 및 농촌 소도시 건설 등을 추진할 것임.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점방향

- TPP/TTIP에 대응하기 위한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의 지역발전 전략을 실시
- '환발해 지역협력 발전강요' 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자유무역시범구' 를 증대
- 금융개혁실험구(윈저우), 중점개발개방실험구(루이리), 생태문명시범구(칭더) 등 각종 개혁개방실험구, 시범구를 실시하며, 신구를 지속적으로 확장

□ 중국은 '13.5' 계획기간 동안 국내외 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 일대일로 발전을 위해 연선국가들과 기초 인프라 및 국제대통로 건설 추진, 경제회랑 공동 건설 등을 추진 예정임.

- 기초 인프라와 국제대통로 건설 추진, 경제회랑 공동건설, 에너지협력 강화, 해외산업 클러스터 건설, 국제금융협력 강화(AIIB, BRICs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구축 등)를 추진할 예정임.

□ 일대일로 전략에서 신장자치구에 있는 뤼창(若羌)은 중요한 지리적 위치임.

- 2015년 4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 추진에 대한 전망과 대책' 을 공동 발표, '중국 각 지방의 개방추이' 를 통해 일대일로 전략에서 각 성의 역할을 소개
 - 그 중 신장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핵심구' , 푸젠성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로 주목받음.
- '13.5' 계획기간중 뤼창지역을 위해 새로운 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4. 한중 경제발전과 경제무역협력

(徐长文, 상무부연구원)

□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연내 양국FTA까지 발효된다면, 양국의 전면적인 경제무역협력,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일체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現 중국 경제의 다섯 가지 특징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가속화) 약 20조위안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3차 산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중단기적 경제성장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15년 상반기 3차 산업은 2차 산업보다 5.8% 높은 8.4% 성장률을 기록하며 GDP의 49.5%를 차지, 이는 경제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단, 선진국들의 3차 산업 GDP비중이 60~70%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율 증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소비, 투자, 수출)' 에서 소비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 작년 소비지출의 GDP 기여율은 50.2%로 투자 기여율 48.5%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소비지출 기여도는 60%로 작년 동기대비 5.7% 증가하며 GDP 성장을 4.2% 견인
 - 향후 소비주도의 중국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정보, 교육, 의료, 양로, 여행 등 분야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새로운 시장 주체들의 등장) 새로운 제도와 경영방식 등 끊임없는 혁신 속 새로운 시장 주체들이 급부상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
 - 새로운 정책: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인터넷+' 등
 - 2015년 상반기 신규 등록 기업 수는 동기대비 19.4% 증가, 등기자본금은 43% 증가하며 투자 역량 증가
- (에너지 소모 감소) 중국은 현재 자원형 경제에서 생태형 경제로 전환 과정 중에 있음.
 - 2014년 중국의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는 동기대비 4.8%, 2015년 상반기에는 5.9% 하락함.
 - 단, 에너지 소모량이 아직 선진국의 2배 이상 수준(세계 75위)으로 에너지 소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 농업 생산성 제고가 농민의 수입 증대로 이어져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 감소
 - 도시 대 농촌 1인 평균 수입 비율: 3.33:1(2009년) → 2.83:1(2015년 상반기)

□ 한국, 1~2년 안에 중국의 2대 무역국으로 부상

- 2012년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한·중 양국의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향후 한·중 무역액이 한·일간 무역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다오위다오 분쟁으로 중·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2012년부터 무역액이 급속도로 감소
 - 2013년, 처음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대일본 수입액을 초과하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1~2년 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 중국의 2대 무역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경제 성장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무역 발전 변화 추세>

(단위: 억 달러, %)

연도	중일무역		한중무역		양국 무역 격차
	교역액	증감	교역액	증감	
2011	3,428.9	15.1	2,456.3	18.6	972.6
2012	3,294.5	-3.9	2,563.3	4.4	731.2
2013	3,125.5	-5.1	2,742.5	7.0	383.0
2014	3,124.4	0	2,904.9	5.9	219.5
1~9월	2,069.5	-11.1	2,003.0	-6.4	66.5

자 료: 중국<海关统计>연감

□ 13·5규획과 두 개의 100년

- 13·5규획기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 건설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
 - 향후 5년간의 청사진 설계를 통해 ‘첫 번째 100년(2021년 중국 공산당 건립 100주년)’ 추진
 - 13·5기간 내 ‘두 번째 100년(2049년 신중국 건국 100주년)’ 위한 초석 다짐.
- 단, △ 많은 인구 △ 불균형 발전 △ 환경 및 식품 안전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봉착해 있음.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야만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샤오강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
 - 2020년까지 7%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GDP 총액이 15만 억 달러를 넘어서, 1인 GDP 1만 달러를 넘는 샤오강 사회가 실현 가능

□ 한중 협력 가속화로 경제 일체화 추진

- 한중 양국은 동북아시아 내 국제 분업에 기초하여 FTA를 체결했고, 이는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일체화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일체화는 주로 10+3, RCEP, TPP, FTAAP 등 이 있으나 아직 모두 협상 단계에 머무는 정도임.
- 한중 FTA는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
- 한국과 중국 경제 모두 전환기에 놓여있지만,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결, AIIB, FTA 등의 협력을 늘려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양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효과적으로 경제 일체화를 가속화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꾀해야할 것임.

5. 위안화 국제화가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추세

(陈虹,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위안화 국제화 보고>(2015년)에 인용된 SWIFT의 통계에 따르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2015년 8월 기준 위안화는 세계 2위의 무역금융통화이자 세계 4위 결제통화로 부상
- 중국의 자본 계정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위안화 결제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제통화의 기능 및 조건

-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및 무역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자격이 부여된 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함.
 - 시장신뢰도 결정 요소: ① 안정적인 환율시스템, ② 성숙한 금융시스템, ③ 해당국 제도의 견고성 및 정치 안정도
- 국제 교역에 사용되는 여러 화폐 중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준통화는 달러임.
 - IMF회원국 187개국 중, 25개국이 달러 연계환율제도를 사용하며 이 중 17개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등 계산단위로써의 달러는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
 - 2013년 기준 세계 외환거래 중 달러, 유로화,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 87.0%, 33.4%, 23.0%(합계200%)로, 달러는 가장 중요한 개입통화(intervention currency)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화폐대신 달러로 결제가 가능하고, 외화예금 중 달러예금의 비중이 63%로 제일 많으며(2014년 3월까지), 세계 외환보유고 중 달러의 비중이 62.3%로 가장 높음(2014년 9월 기준).

□ 달러중심의 환율기제

- 미성숙채권국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힘쓰고 있음.
- 1994년부터 환율 단일화를 실시, '1달러=8.28위안'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후 2005년까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시행해 옴.
- 위안화 환율 변동의 탄력성 증대와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 중 역외 위안화 거래와 한중 통화 스와프의 확대로 위안화 사용 범위가 증가함.
- 2008년 금융위기 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달러 가치에 고정시켰고, 이 시기 중국 중앙은행은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통화팽창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관리정책을 시행
 - 국제수지 평형의 관점에서 중국은 완전금융자유화의 실현보다는 △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안정세 유지, △ 자본유입에 대한 관리 강화, △ 위안화 자산에 대해 일정수준의 이율제한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급선무임.

□ 환율안정기제와 거시경제

- 1994년 환율개혁이래 환율과 거시경제 간의 관계를 돌아해보면, 중국은 위안화와 미국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직접투자(FDI)와 수출의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뤄냄.
- 중국의 WTO에 가입으로 관세 혹은 수출 쿼터제를 이용한 중국 수출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회원국들은 위안화와 달러간의 환율 변동을 보다 주시함으로써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수출을 억제하고자 함.
 - 미국정부는 위안화가 평가절하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

□ 위안화 국제화 진행과정의 어려움: '미성숙채권국'¹⁾ 상태의 중국

- 현재 중국은 위안화로 계상할 수 없는 미성숙 채권국이며, 금융시장이 여전히 이율 및 자본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위안화로 국제채무를 계상한다면, 자본의 유동성이 감소될 것임.
- 중국과 같은 미성숙채권국은 자본시장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미완의 발육상태인 중국 자본시장

- 중국이 성숙채권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외수출을 통한 위안화 표기의 충분한 민간자본이 필요, 즉 위안화 국제화는 반드시 실행되어야함.
- 중국정부는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으로, 이를 통해 위안화 거래를 촉진하고 자본계정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자 함.
-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익과 리스크는 공존함.
 - 이익: ①자금조달과 투자방법의 다양화 ②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실행 가능 ③거시경제정책 및 국내 금융부문의 시장기제 운용 ④자본거래 관리감독 비용 절약
 - 리스크: ①거시경제정책과 국내금융부문의 충분한 준비, 만약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화폐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존재 ②자본유동의 내용 및 자본수지 관리 불가능 ③새로운 리스크의 등장 및 이율, 환율, 주가 등의 파동 증가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증가

□ 위안화 환율형성기제 개혁

- 최근 중국은 시장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위안화 환율기제로 거듭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킴.
- 자본계정의 자유화 시행 이전에 중국은 환율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고자 함.
- 중국은 현재 환율형성기제 중 위안화자유태환의 제한이 많고, 현재 중국 국민 중 외화자산을 가진 비중이 적어 외환관리를 개방하면 대규모 국내자본 유실을 우려함.
 - 현재 저축 중 달러자산의 수요는 약 20만억 달러 정도이나 외환 저축은 3.7만 억 달러에 그침.
- 환율 관리제도를 자유화하기 전에 시장화 자유기제를 형성하여 위안화 외환보유고의 대규모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1) 국제수지 발전단계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성숙채무국, 성숙채무국, 미성숙채권국, 성숙채권국 등 크게 4 단계로 순환'함.

□ 거시경제 통계데이터의 국제 비교가능성 증가

- 2015년 6월 중국은 IMF 특별공시기준(SDDS)을 채용하면서 포괄적인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추구하고자 함.
 - SDDS 채택은 중국의 개혁 심화와 대외 개방 확대 수요에 부합하며, 거시경제 통계 데이터 투명성, 신뢰성, 국제적 비교 가능성 제고에 유리함.
 - 또한 거시경제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여 국가 거시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 적절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SDDS 채택은 통계 체계 완비, 투명성 향상에 있어 중국이 거둔 큰 성과임.
- SDDS 채택 전 중국은 2002년부터 IMF 일반공시기준(GDDS)에 따라 통계 데이터 작성 및 공개 체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 SDDS와 GDDS는 모두 IMF가 제정한 데이터 공개 기준임.
 - 두 기준 모두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나 데이터 포괄 범위, 공개 빈도, 공개 적시성, 데이터 품질, 대중 확보 가능성 등에 있어서 SDDS의 요건이 보다 높고, 기준에 따라 실물경제, 재정, 금융, 대외, 사회 인구 등 5개 분야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위안화 해외결제시스템 구축

- 세계 4대 결제 통화 및 2대 무역 용자 통화로 부상한 위안화의 독립적인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안화 글로벌 결제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필연적 선택임.
- 2015년 10월 8일,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 1기를 공식 출범시킴.
-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의 5가지 특징: ① 전액 실시간 결산 방식으로 고객 및 금융기관의 송금 업무 처리, ② 직접참여자 동시 액세스방식으로 자금청산 업무의 집중도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시켜 효율성 제고,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20022금융통신메시지 표준을 채택하여 국제업무 처리의 편의성 제고, ④ 시스템 작동시간은 북경기준 법정근무일(9:00~18:00), ⑤ 국내 직접참여자를 위한 전용 액세스 방식 제공
- 국제 위안화 청산·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일차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 세계 위안화 거래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금융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6. 호주-중국, 호주-일본, 호주-한국 FTA 비교

(呂博, 상무부연구원)

- 한중일 3개국은 모두 호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호주는 중국, 한국, 일본과 각각 FTA를 체결
 - 2000년 이후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 상대국임.

- 일본은 호주의 2대 수출 상대국인 동시에 3대 수입 상대국, 한국은 호주의 3대 수출 상대국인 동시에 4대 수입 상대국임.
- 2014년 한중일 3개국에 대한 호주의 상품수출액은 1,569억 호주 달러인데 그 중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894억 호주 달러로 3개국 수출총액의 57%를 차지하였음.
- 2014년 한중일 3개국에 대한 수입총액은 809억 호주 달러인데 그 중 중국에 대한 수입액은 520억 호주 달러로 한중일 3개국 수입총액의 64%를 차지함.
- 호주는 한중일 3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크고 무역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흑자를 유지함.
- 투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대호주 투자는 호주의 대일본 투자의 2배를 초과하였으며, 호주-중국, 호주-한국 사이의 상호투자 규모는 거의 비슷함.

□ 호주-중국, 호주-일본, 호주-한국FTA 협상 중 주요의제 분석

- (상품무역) 호주-한국, 호주-일본, 호주-중국 FTA 발효 당시, 호주는 한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금액)이 84%를 차지하고 10년 후에 동 비중을 94.6%로 증가시킨다고 약정함.
 - 일본에 대한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은 88%에 달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은 86.4%(해관관세 품목의 29.2%)에 달함.
- (상품무역) 협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국에 대한 호주의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은 99.8%(2033년), 일본에 대한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은 97%(2034년), 중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은 95%(2028년)에 달할 것임.
- (투자자유화) 호주는 외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6,300억 호주 달러로 5년전보다 40% 증가할 것임.
 - 2013년 기준 부동산 관련 분야에 외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였고 그 다음으로 광산탐사와 개발업 순임.
- (투자자유화) 호주의 한중일 3개국에 대한 투자대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과거 미국과 뉴질랜드에 대한 우대대우와도 유사한 수준임.
- (서비스시장 진입) 호주는 한중일 3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금융, 법률, 교육, 전자통신 등 자국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가진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제시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둠.

□ 호주-중국, 호주-일본, 호주-한국FTA의 경제효과 분석

- FTA 협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후 한중일 3개국에 대한 호주의 무관세 수출상품 비중은 향후 10~20년 사이에 각각 99.8%, 95%, 97%에 달할 것이며, 협정이 발효된 후 5~10년에 걸쳐 호주는 동 3개국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할 예정임.
- 호주-중국 무역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호주는 호주-중국간 무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됨.
 - 호주-일본, 호주-한국의 FTA 협상 중 소고기, 양고기, 우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은 협상의 주요 포인트였음.
 - 호주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소고기, 양고기와 우유제품에 대한 관세양허를 주요 의제로 채택함.
- 호주는 한일 양국과 FTA협상시 한국과 일본에게 농산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함.

- 2012-13년 호주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가 44.5%를 차지하고 있음. 동기간 대한 수입총액 중 자동차 관련 분야 수입액이 76.6%를 차지함. 중국산 자동차의 호주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호주는 호주-중국 FTA협상후 중국에게 곡물, 면화, 기름, 설탕 등 주요 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중국은 호주가 국유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함.
-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투자이민대상국이고 2대 기술이민대상국이며, 호주의 가장 큰 관광경제, 유학생 대상국임.

7. 한국 기업의 중국내 특허특징 분석

(陳向東, 중국항공항천대학 경제관리학원)

□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상대국으로 부상

- 1990년대 이후 양국은 무역이 급속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한 대외직접투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992년 양국이 수교부터 2014년 말까지 한국의 대중투자누계액은 598억 달러에 달함.

□ 중국, 한국, 일본 3개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관계는 비교적 큰 보완성을 보이고 있으며, 3개국 사이의 활발한 산업내 무역활동을 형성

-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상호보완 관계가 현저한 산업은 섬유, 화학, 금속, 전자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 분야이며, 특히 중간재의 수입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음.
- 중국과 일본에 대해 산업관련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의 산업은 섬유, 전자제품, 화학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계, 금속제품 등을 포함함.

□ 한국의 대기업은 특허 출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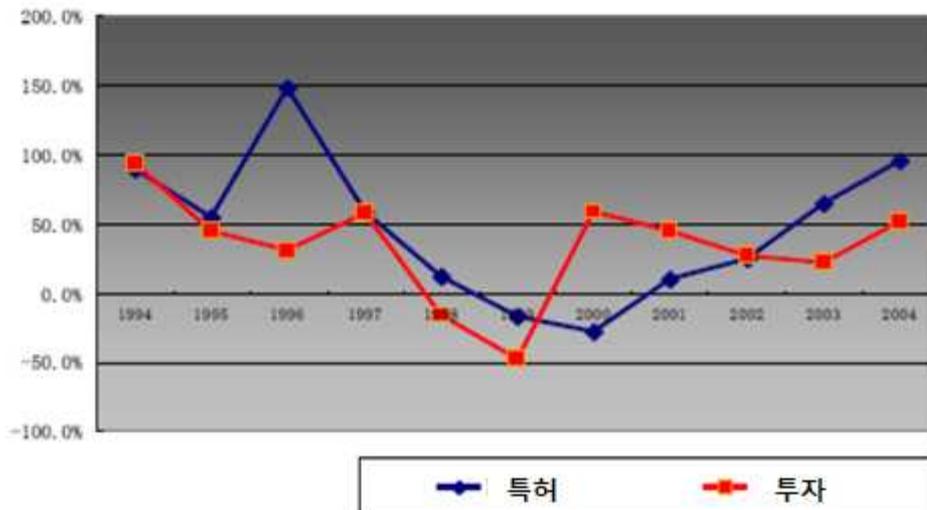
- 한국의 대기업은 특허 수와 품질면에서 하이테크 투자활동의 주력군임을 알 수 있음.
- 한국 특허청과 WI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제특허 출원수는 1,3151만 건으로 연속 5년 전세계 5위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삼성, LG, 대우, 현대 등 대기업의 중국내 특허출원 비중이 전체 한국기업의 중국내 특허출원수의 66%를 차지함.

□ 한국기업의 중국내 R&D활동이 증가하면서, 특허 건수가 증가

- 2002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R&D투자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국기업은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초기 한국기업은 '기술 R&D는 한국, 제품 생산은 중국' 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기술자원의 투입을 증가하고, 중국내 특허출원수를 대폭 증가함.
-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기술투자 현상의 변화 패턴(과거의 저렴한 노동비용우위를 추구에서 기업의 기술자원 우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을 보여줌.
- 한국기업의 중국내 특허신청 건수는 1992년의 202건에서 1997년의 2,055건으로 증가, 1999년에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001년 이후 또다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3년에 독일을 초과하여 일본,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서의 특허출원 수가 3위를 차지한 국가로 부상
- 2014년 연중까지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누적 126,478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중국내 해외기업의 특허출원의 9.7%를 차지

<한국의 대중투자 및 중국내 특허신청 추이>



- 최근 대기업 위주의 대중투자가 중소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한국의 대중 투자분야가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변화
 - 한국의 대중 주요 투자분야는 전자통신, 전자설비, 컴퓨터 산업으로, 이는 중국내 특허출원 분야와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 누적 출원수가 가장 많은 상위 8위권 산업은 모두 정보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집중됨.
 -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분야의 특허 출원수는 비교적 적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중투자가 주로 가공무역 무역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8. 한중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胡文龙,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협력국가 중 하나로 92년 수교 이래, 양국의 무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양국의 무역 규모는 수교당시 60억 달러에서 2014년 2,904.9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협력국가임.

□ 한중간 무역현황 분석

- 양국의 무역관계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 규모는 연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안정적인 관계 속 양국의 관계는 심화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2000~2014년 14년 간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대한국수출입 및 무역액의 비중은 안정적인 추세임.

◦ 한국은 중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한중 간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분석

- (1차 제품) 중국과 한국 모두 RCA지수가 1보다 작아 비교열위를 보이나, 상대적으로 식료품 및 산동물(SITC0)은 중국이,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SITC3)은 한국이 보다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중국은 2000년 이래 1차 제품의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악화로 인한 수출규모의 감소라기보다는, 경제발전 및 수출제품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공업제품) 중국은 노동 밀집형 제품(SITC6, SITC8)에 보다 경쟁력을 지녔으며, 자본 및 기술 밀집형 제품의 경우 한국이 다소 우위를 보이기는 하나, 양국 모두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재료별제조제품(SITC6)은 비록 RCA지수가 1보다 크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제조제품(SITC8)은 비교열위에 놓여있음.

◦ 화학물 및 관련제품(SITC5)에서 중국은 현상유지에 그치는 반면에, 한국은 항상 중국보다 비교우위를 지녀왔고, 2000년 이후부터는 보다 두드러진 경쟁력 상승 양상을 띠.

◦ 기계 및 수송장비(SITC7)의 경우, 한국의 RCA지수는 항상 1보다 컸고 중국은 1보다 작을지라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음.

<2000-2014년 중국 1차 제품 및 공업 제품 현시 비교우위지수>

연도	1차 제품					공업 제품				
	SITC0 식료품 및 산동물	SITC1 음료와 담배	SITC2 비식용 원료 (연료제외)	SITC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SITC4 동식물성 의 유지 및 왁스	SITC5 화학물 및 관련 제품	SITC6재 료별 제조제품	SITC7 기계 및 수송 장비	SITC8 기타 제조 제품	SITC9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2000	0.93	0.33	0.58	0.31	0.15	0.54	1.26	0.81	2.81	0.05
2001	0.84	0.35	0.52	0.33	0.13	0.52	1.22	0.88	2.61	0.05
2002	0.78	0.31	0.46	0.28	0.08	0.45	1.19	0.97	2.48	0.05
2003	0.70	0.25	0.38	0.26	0.06	0.42	1.16	1.09	2.33	0.05
2004	0.59	0.24	0.31	0.23	0.06	0.42	1.21	1.16	2.23	0.04
2005	0.57	0.19	0.31	0.19	0.09	0.44	1.22	1.21	2.21	0.05
2006	0.54	0.16	0.24	0.13	0.10	0.45	1.29	1.26	2.23	0.06
2007	0.49	0.14	0.21	0.13	0.06	0.47	1.25	1.29	2.22	0.04
2008	0.43	0.14	0.22	0.13	0.07	0.53	1.34	1.38	2.27	0.03
2009	0.43	0.15	0.20	0.13	0.05	0.45	1.22	1.44	2.14	0.02
2010	0.45	0.15	0.18	0.12	0.05	0.50	1.22	1.45	2.18	0.02
2011	0.46	0.16	0.18	0.11	0.05	0.56	1.29	1.46	2.26	0.02
2012	0.43	0.16	0.17	0.09	0.05	0.52	1.31	1.43	2.35	0.01
2013	0.41	0.15	0.16	0.09	0.05	0.50	1.33	1.42	2.32	0.02
2014	0.39	0.05	0.17	0.12	0.05	0.51	1.33	1.29	2.19	0.02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여 계산

□ 한중 무역 상호보완성 분석

- RCA지수 비교를 바탕으로 양국의 상호보완지수를 측정해본 결과, 무역구조는 산업 간 무역 위주로 상호보완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한국의 수출 및 수입제품 간에 일치도가 높을수록 양국 무역의 상호보완성은 높아짐.
- ‘중국의 수출’ 및 ‘한국의 수입’ 무역 간 상호보완성 지수 측정 결과
 - 1차 제품(SITC0, SITC1, SITC2, SITC3, SITC4)>1: 상호보완성 高
 - 노동밀집형(SITC6, SITC8)<1: 상호보완성 低
 - 자본 및 기술 밀집형(SITC5, SITC9)>1: 상호보완성 高
 - 자본 및 기술 밀집형(SITC7)<1: 상호보완성 低
- ‘한국의 수출’ 및 ‘중국의 수입’ 무역 간 상호보완성 지수 측정 결과
 - 1차 제품(SITC0, SITC1, SITC2, SITC3, SITC4)<1: 상호보완성 低
 - 노동밀집형(SITC6, SITC8)>1: 상호보완성 高
 - 자본 및 기술 밀집형(SITC5, SITC7)>1: 상호보완성 高
 - 자본 및 기술 밀집형(SITC9)<1: 상호보완성 低
- 한·중 간 종합적인 무역 상호보완성 지수 측정 결과
 - 2000~2014년 15년간 한국과 중국 수출의 종합성 무역 상호보완성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 중국수입의 종합 무역 상호보완성지수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1을 상회하며 높은 상호보완성을 보였으나, 양국 간 무역이 산업간 무역으로 이뤄지는 만큼 중국은 여전히 국제 분업체계에서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
- 공업제품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에 기타(SITC9)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보여 향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할 것으로 관측

<2000-2014년 한중간 무역 상호보완성 지수>

상호보완성	연도	1차 제품					공업 제품					종합 상호보완성 지수
		SITC0 식료품 및 산동물	SITC1 음료와 담배	SITC2 비 식용 원료 (연료제 외)	SITC3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 물질	SITC4 동식물 성의 유지 및 왁스	SITC5 화학물 및 관련 제품	SITC6 재료별 제조제 품	SITC7 기계 및 수송 장비	SITC8 기타 제조 제품	SITC9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한국수입및중국수출관계	2000	0.80	1.15	3.06	7.49	3.81	1.68	0.66	1.14	0.21	6.98	1.96
	2001	0.99	1.23	3.62	7.38	4.55	1.77	0.72	0.98	0.23	6.05	1.85
	2002	1.09	1.51	4.04	7.99	7.71	1.92	0.78	0.92	0.27	6.93	1.96
	2003	1.14	1.53	4.49	8.00	8.30	2.01	0.80	0.84	0.31	9.06	2.11
	2004	1.28	1.20	5.38	8.54	9.77	2.04	0.83	0.76	0.33	9.96	2.28
	2005	1.29	1.32	5.39	10.17	6.77	1.96	0.83	0.70	0.34	2.17	2.25
	2006	1.37	1.55	7.15	14.76	5.31	1.89	0.78	0.65	0.34	1.65	3.06
	2007	1.51	1.88	8.11	14.58	9.92	1.80	0.83	0.66	0.31	2.86	3.02
	2008	1.65	1.91	7.00	14.07	7.13	1.48	0.84	0.58	0.28	2.63	3.34
	2009	1.55	1.75	8.43	15.61	10.68	1.83	0.90	0.61	0.29	2.96	3.27
	2010	1.50	1.70	8.92	16.18	11.70	1.68	0.86	0.58	0.32	5.09	3.68
	2011	1.60	1.38	9.24	17.94	11.06	1.45	0.75	0.54	0.30	3.45	4.11
	2012	1.70	1.45	9.70	21.09	11.63	1.58	0.71	0.52	0.30	4.95	4.77
	2013	1.77	1.71	9.25	21.06	9.19	1.60	0.69	0.55	0.31	4.17	4.66
2014	1.93	4.79	8.86	17.47	10.60	1.54	0.71	0.61	0.33	3.30	3.55	
한국수출및중국수입관계	2000	0.68	0.72	0.13	0.60	0.02	0.61	0.96	1.39	1.31	1.16	1.06
	2001	0.73	1.02	0.13	0.77	0.04	0.65	1.03	1.28	1.25	0.94	1.04
	2002	0.75	1.62	0.14	0.64	0.02	0.66	1.01	1.29	1.00	0.97	1.00
	2003	0.79	1.92	0.14	0.54	0.02	0.76	1.00	1.31	0.80	2.77	1.05
	2004	0.60	1.98	0.11	0.52	0.01	0.79	1.08	1.37	0.67	3.73	1.09
	2005	0.61	1.56	0.10	0.63	0.01	0.85	1.15	1.35	0.79	0.28	0.98
	2006	0.58	1.41	0.11	0.59	0.01	0.91	1.27	1.28	0.93	0.99	1.01
	2007	0.59	1.23	0.10	0.65	0.01	0.92	1.27	1.31	0.96	0.74	1.02
	2008	0.58	1.07	0.10	0.64	0.01	0.98	1.45	1.38	1.02	0.80	1.05
	2009	0.60	1.16	0.09	0.57	0.01	0.95	1.20	1.39	1.19	2.09	1.10
	2010	0.53	1.23	0.09	0.54	0.02	1.02	1.34	1.45	1.22	0.39	1.06
	2011	0.52	1.03	0.10	0.66	0.02	1.10	1.55	1.49	1.11	0.16	1.08
	2012	0.44	0.98	0.10	0.68	0.02	1.18	1.62	1.46	1.09	0.13	1.08
	2013	0.39	0.94	0.09	0.65	0.02	1.27	1.60	1.51	1.11	0.04	1.10
2014	0.33	0.37	0.09	0.74	0.03	1.22	1.36	1.43	1.06	0.04	1.05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여 계산

□ 한중간 산업협력 심화를 위해 수평적일체화의 직접투자 진행 및 한국 투자 수준 개선

-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의 경우 수직일체화와 수평일체화 직접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수평적일체화 직접투자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함.
 - 수평적일체화 직접투자의 경우, 양국이 합리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국제 분업의 기반 위에 진행되어 장기적 경제 발전에 유리하고, 기술전수, 전시효과, 학습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더 명확함.
- 현재 중국은 아직 한국의 수직일체화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에 힘써야할 것임.
 -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대부분 단일산업, 소규모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수직일체화 투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양국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에서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방향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며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진행하여 지역경제 중 분업과 협업을 통해 양국 제조업 산업 내 무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할 것임.

□ 한중 FTA 전면 실시 및 한중 산업협력 심화

- 2015년 6월 1일 정식 체결된 한중 FTA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양국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해야할 것임.
-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한중 경제 일체화는 양국의 경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산업내무역의 심화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전면적 교류와 협력 강화 및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산업 협력 시스템 구축

- 한중간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전면적인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를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임.
- 산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이익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